

##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혜금\* 양숙경\*\*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Neglect Perceived by Child and Community Awareness of Child on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 Gender

Kim, Hye Gum Yang, Suk Kyung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012년) 데이터로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총 2,219명(남아 1,167명, 여아 1,052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학대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가 여아보다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남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여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해가는 전이과정에 있는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 아동,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

\*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khghoonba@hanmail.net)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 아동가족학전공 박사수료(ysk7744@hanmail.net)

## I. 서론

학교는 아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체계이다. 학교는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기술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며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의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장이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간에서 보내면서 아동이 사회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일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동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편안하고 성공감을 느끼는 것(Perry & Weinstein, 1998) 혹은 학교의 요구에 대해 아동이 적응하기 위해 시도하는 결과(Ladd, 1990)로 간주된다. 즉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로서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을 의미하므로(정규석, 2004), 아동이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잘 따라가며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친구 및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다(Hoy & Sweetland, 2001).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박기원, 2014; Manly, Lynch, Oshri, Herzog, & Wortel, 2013; Shonk, & Cicchetti, 2001).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또래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조은정, 2013), 전반적인 학교적응은 물론, 교사, 수업, 친구 그리고 학교생활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신성자, 2001).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로 전이되는 시기로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정익중, 이지언, 2010, 2012) 학교에 가지 않거나, 가출을 하거나,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유경, 2008)가 있는가 하면 서양 아동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고된 결과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송주영, 2011)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Karriker-Jaffern, 2006)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에 오래 살고 싶어하며 소속감을 갖는다. 아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 신뢰, 안정 등의 긍정적인 태도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더 잘 하게 하고 보다 높은 성취 수준으로 이끈다(조정아, 2012; Kowaleski-Jones, Dunifon, & Ream, 2006). 집 주변 지역사회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반면 지역사회의 위험은 아동의 학교 출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의 부진으로 이어지며(Bowen, Richman, Brewster, & Bowen, 1998),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

회통제, 범죄, 부정적인 또래 문화는 아동의 학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폭력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Nash, 2002). 이처럼 지역사회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는 많지만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여아가 남아에 비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수준과 질은 중학교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초등학교 적응 여부는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운, 이경아, 2004; 이희은, 문수백, 2011, 정현희, 2003;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학년으로 간주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로 진학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이 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성혜, 윤종희, 2013).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아지며(양숙경, 문혁준, 2009),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못하는 아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중학교 이후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적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금, 2014),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최지은, 신용주, 2003), 국외연구로는 13살~15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Danielsen, 2009)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님, 2008; 정미영, 문혁준, 2007)에서는 남아와 여아 간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보다 반복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가정과 사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과 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성별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

떠한가?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012년) 데이터로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총 2,219명(남아 1,167명, 여아 1,05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아가 1,167명(52.6%)으로 여아 1,062명(47.4%)보다 조금 더 많았고 형제가 있는 아동이 1,960명(88.4%)으로 외동아 258명(11.6%)보다 많았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졸 897명(43.0%), 고졸 783명(37.5%), 전문대졸 229명(10.9%)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997명(46.9%), 대졸 736명(34.7%), 전문대졸 287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1,349명(63.9%)으로 비취업모 763명(36.1%)보다 현저히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구분	빈도	%
성별	남	1,167	52.6
	여	1,052	47.4
	소계	2,219	100.0
형제유무	형제아	1,960	88.4
	외동아	258	11.6
	소계	2,218	100.0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58	2.8
	고졸	783	37.5
	전문대졸	229	10.9
	대졸	897	43.0
	대학원졸	121	5.8
	소계	2,088	100.0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47	2.2
	고졸	997	46.9
	전문대졸	287	13.5
	대졸	736	34.7
	대학원졸	57	2.7
	소계	2,124	100.0
어머니 취업	취업모	1,349	63.9
	비취업모	763	36.1
	소계	2,112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세 가지로 구성된다.

### 1) 부모의 방임학대

부모의 방임학대 척도는 허묘연(2010)의 척도와 김세원(2003)의 척도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구성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8개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방임 4문항(예;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과 학대 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총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학대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방임이 .81, 학대가 .84, 그리고 방임학대 전체는 .78로 나타났다.

### 2) 지역사회 인식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 척도는 ADD Health(2009)의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설문지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인식은 6개 문항(예;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인식 문항 중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경계한다' 문항을 제외하고 역으로 합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 3)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20개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별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5문항(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 5문항(예;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를 제외한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학습활동이 .72, 학교규칙이 .81, 교우관계가 .67, 교사관계가 .89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방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남아( $M=1.76, SD=.67$ )가 여아( $M=1.60, SD=.60$ )보다 높게 나타나( $t=5.78, p<.001$ )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역사회 인식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지역사회 인식( $M=2.98, SD=.53$ )이 여아의 지역사회 인식( $M=2.86, SD=.51$ )보다 높게 나타나( $t=5.56, p<.001$ ) 남아가 여아보다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각은 교우관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 남아( $M=3.08, SD=.46$ )가 여아( $M=3.15, SD=.42$ )보다 낮게 나타나( $t=-3.72, p<.001$ ) 남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에 있어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 = 2,219)

변인	남아 (n= 1167)		여아 (n=1052)	t
	M(SD)		M(SD)	
방임학대	방임	1.63(.62)	1.63(.56)	-1.10
	학대	1.76(.67)	1.60(.60)	5.78***
지역사회 인식		2.98(.53)	2.86(.51)	5.56***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2.91(.54)	2.94(.50)	-1.52
	학교규칙	2.97(.60)	3.00(.50)	-1.24
	교우관계	3.08(.46)	3.15(.42)	-3.72***
	교사관계	3.04(.71)	3.03(.70)	.58
학교생활적응 전체		3.00(.46)	3.03(.41)	-1.55

\*\*\*  $p<.001$

## 2.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r=-.24, p<.001$ )과 학대( $r=-.16, p<.001$ )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남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N = 1,167)

	1	2	3	4	5	6	7
1. 방임	1						
2. 학대	.16***	1					
3. 지역사회인식	-.24***	-.16***	1				
4. 학습활동	-.34***	-.14***	.27***	1			
5. 학교규칙	-.27***	-.13***	.25***	.57***	1		
6. 교우관계	-.36***	-.15***	.38***	.54***	.48***	1	
7. 교사관계	-.31***	-.10*	.30***	.50***	.49***	.49***	1

\* $p<.05$ , \*\*\* $p<.001$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r=-.31, p<.001$ )과 학대( $r=-.15, p<.001$ )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지각한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N = 1,052)

	1	2	3	4	5	6	7
1. 방임	1						
2. 학대	.25***	1					
3. 지역사회인식	-.31***	-.15***	1				
4. 학습활동	-.31***	-.23***	.34***	1			
5. 학교규칙	-.25***	-.16***	.34***	.58***	1		
6. 교우관계	-.34***	-.21***	.32***	.52***	.45***	1	
7. 교사관계	-.25***	-.10**	.33***	.47***	.40***	.35***	1

\*\* $p<.01$ , \*\*\* $p<.001$

### 3.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 계수는 남아의 경우 1.04~1.08점, 여아의 경우 1.07~1.16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남아의 경우 1.90, 여아의 경우 1.88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부모의 방임( $\beta=-.38, p<.001$ )과 학대( $\beta=-.10, p<.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17%의 설명력이 있었다. 남아의 지역사회 인식이 포함된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2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1,167)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방임	-.28	-.38***	-.24	-.32***
학대	-.07	-.10***	-.04	-.06*
지역사회 인식			.25	.29***
F값	115.90***		124.10***	
R <sup>2</sup>	.17		.24	
R <sup>2</sup> 변화량	-		.07	

\* $p<.05$ , \*\*\* $p<.001$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부모의 방임( $\beta=-.33, p<.001$ )과 학대( $\beta=-.13, p<.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15%의 설명력이 있었다. 지역사회 인식( $\beta=-.34, p<.01$ )이 포함된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여아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1,052)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방임	-.24	-.33***	-.17	-.23***
학대	-.09	-.13***	-.07	-.11***
비행 피해경험			-.27	-.34***
F값	92.22***		119.00***	
R <sup>2</sup>	.15		.25	
R <sup>2</sup> 변화량	-		.10	

\*\*\*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남아와 여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문제 별로 얻은 결과를 기초로 논의 및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방임에 대한 지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학대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송주영, 2011)는 주장을 지지하며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김유경(2008)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본 송주영(2011)의 연구결과,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남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아보다 강압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남아가 학대로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지각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으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주변의 위험에 보다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여아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웃을 신뢰하기 보다는 경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특히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이 타인과의 밀접한 유대와 애착형성을 막는다(전영실, 2008)고 보는 사회통제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한 남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체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높은 기대를 하고 남아에게 보다 엄격한 양육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남아에게 부모의 학대로 지각될 수 있으며 부모에게서 받은 학대경험이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남아가 교

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아는 여아보다 자신의 어려움이 나 고민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특성이 있기(Hunter, Boyle, & Warden, 2004)에 부모의 학대는 남아에게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특히 친구가 중요해지는 아동기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과 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는 아동의 방임과 학대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방임학대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최은희(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좌문경(200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아동은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의해서 학교에서의 불충분한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좌문경(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자본 중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함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한 이정선(2005)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 학교규범,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미정과 염동문(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6학년 아동은 부모가 방임과 학대를 한다고 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비효과적인 양육행동은 많은 위험요소와 적은 심리 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해 비행이나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행동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istry와 2012).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와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도를 낮춘다고 보고한 Ng, Kenney-Benson과 Pomerantz(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부모의 학대보다 방임이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유형을 조사한 이복희(2007)는 방임이 56%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방임은 아동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 방임을 경험하는 남아가 많음을 시사한다. 201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에서도 방임이 가장 많이 나타난 아동의 연령은 만10세에서 12세사이로 나타났는데 6학년은 이 연령대에 속한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든 남아는 부모와 의견 충돌 시 폭력적으로 변화는 경우도 생기기

되어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은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김미숙, 박명숙, 2007; 송주영, 2011; 신성자, 2001)).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증진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이웃이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아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허균, 2011)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동기는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보호와 양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여아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아동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아도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감, 공고한 유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이정선(2005)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Danielsen, 2009)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아동의 지지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패널자료에 국한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3차년도 자료만을 본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변화 양상에 대하여 논의 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였기에 자기 보고식 질문지의 제한점을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이나 질문지를 병행하거나,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남아와 여아가 인식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 적응은 모두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사회의 환경

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통제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학대를 덜 인식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부모의 방임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사회의 안전, 신뢰,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해가는 전이과정에 있는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미숙, 박명숙 (2007). 아동의 학습 능력 저해 요인으로서의 학대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 김미정,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경 (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43, 30-43.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에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2(1), 11-19.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초·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2), 91-118.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송주영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 서양의 사례연구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16, 183-193.
- 신성자 (200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수 파악. **사회과학**, 13, 227-259.
- 양숙경, 문혁준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 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59-71.
- 이경님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복희 (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99-121.
- 이정선 (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131-150.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희은,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 전영실 (2008). 피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85.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익중, 이지언 (2010).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2), 60-80.
- 정익중, 이지언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33(2), 217-242.
- 정현희 (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11(2), 26-36.
- 조은정 (2013). 사회적 지지가 부모들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1), 17-26.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27-309.
- 좌문경 (2009).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동광**, 105, 71-144.
- 최은희 (2005). 부모의 학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허균 (2011). 복지패널을 활용한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 변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0(3), 287-30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DD Health (2009).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owen, G. L., Richman, J. M., Brewster, A., & Bowen, N. K. (1998). Sense of school coherence, perceptions of danger at school, and teacher support among youth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5(4), 273-286.

- Danielsen, A. G. (2009). School 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Hoy, W. K., & Sweetland, S. R. (2001). Designing better schools: The meaning and measure of enabling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3), 296-321.
- Hunter, S. C., Boyle, J. M. E., & Warden, D. (2004). Help seeking amongst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peer-aggression and bullying: The influence of school-stage, gender, victimisation, appraisal, and emo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3), 375-390.
- Karrirker-Jaffe, K. J. (2006). Neighborhood and family effect o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three studies using multileveled growth curve model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Kowaleski-Jones, L., Dunifon, R., & Ream, G. (2006). Community contributions to scholastic succ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3), 343-362.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up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Manly, J. T., Lynch, M., Oshri, A., Herzog, M., & Wortel, S. N. (2013). The impact of neglect on initial adaptation to school. *Child Maltreatment, 18*(3), 155-170.
- Mistry, K. B., Minkovitz, C. S., Riley, A. W., Johnson, S. B., Grason, H. A., Dubay, L. C., & Guyer, B. (2012). A New Framework for Childhood Health Promotion: The Role of Policies and Programs in Building Capacity and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9), 1688-1696.
- Ng, F. F.-Y., Kenney-Benson, G. A., & Pomerantz, E. M. (2004). Children's achievement moderates the effects of mothers' use of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Child Development, 75*(3), 764-781.
- Perry, K. E., & Weinstein, R. S. (1998). The social context of early schooling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3*(4), 177-194.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abuse perceived by child and community awareness of child on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2,219 sixth grade students(1,167 boys, 1,052 girls) in the third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ys perceived parental abuse more than girls and boys perceived community more positively than girls. Boys perceived more difficulty than girls in peer relationship adjustment. Second,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boy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and community awareness of boy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girl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and community awareness of gir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the less perceived parental neglect/abuse and the better perceived community, the better the boys and girls could have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s a fundamental data about the parental neglect/abuse and the community awareness which can improve the school life adaptation of a sixth grade students who are moving from a primary school to a middle school.

▶*Key Words* : child, parental neglect/abuse, community awareness, school life adjustment

논문투고 2014. 06. 21.  
수정원고접수 2014. 09. 29.  
최종게재결정 2014. 10. 05.